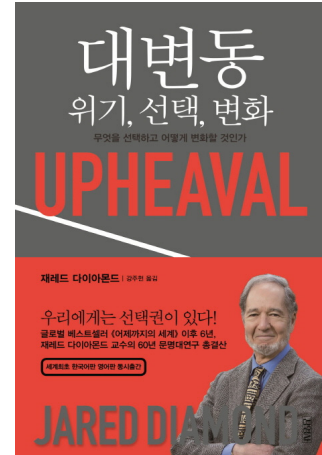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저 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강주헌 옮김)
출간일: 2019년 6월 10일
출판사: 김영사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은 〈대변동〉은 저자 자신이 겪었던 위기와 그의 극복과정을 소개한 후, 독일, 일본, 핀란드,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등 근현대국가들이 국가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쓴 책이다. 저자는 위기를 ‘일반적인 대처법과 문제 해결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 극복이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극복 구조들을 바탕으로 위기극복의 12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주요 극복 요인으로는 먼저 위기를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한계를 정하며,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자아(국가 정체성)와 핵심가치의 보존, 인내와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리학 교수를 하다가 60대에 지리학 교수가 된 화려한 경력의 저자가 대학원생 시절에 생리학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좌절과 위기는 우리도 각자의 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다. 어떤 학생에게는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일제 강점, 분단과 전쟁, 정치적 혼란, 외환위기를 연속적으로 겪고 난 우리로서는 그들의 위기가 그저 남의 일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지금 세계는 covid-19 pandemic이라는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

우리 누구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 사회, 의료,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저자가 설명한 몇 나라들의 경우, 당연히 각 국가는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위기가 생겼고, 위기 극복의 요인도 서로 다르게 작용하여 위기 후에는 다른 모습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위기 극복과정으로부터 우리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볼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는 이 나라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의 나 자신, 이 사회, 이 나라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바른 역사관을 통해 바로 이해하여야 우리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 설정된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미래를 망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평: 김종엽(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명예교수)

cykimku@korea.ac.kr